

Healing VII.

막힘이 없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1. 에스겔 47장

에스겔은 환상중에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을 본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에스겔의 발목, 무릎, 허리를 넘어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것을 보았다(에스겔 47:1-5). 그리고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된다. 이 물이 흐르는 곳 마다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물이 흐르는 곳 마다 번성하게 된다.

2. 흘러가는 곳 마다

[에스겔 47:8-9]

8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9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 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온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번성하는 일이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물 자체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흘러간다' 라는 단어이다.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물이라 해도 흘러가야 그 곳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이다.

3. 영적인 원리의 적용

[요한복음 3:8]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이다. '영'의 속성은 막힘이 없다. 시공간을 초월한다.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지 않다. 그 말은 내가 만든 공간 안에서, 영이 내 마음대로 조종당하며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령은 인간이 조종하는 '기'가 아니다.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이 우리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누가복음 17:20-21]

20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21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정통해 있던 자들이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묻는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완벽하게 당장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나라를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하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단순한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스라엘에 국한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나라이다. 너희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먼저 너희 심령안에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4. 에덴동산

이와같은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죄 짓기 전의 사람에게 막힘없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었던 에덴동산이다.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한 이 땅을 복 있게 할 수 있는 ‘복된 존재’ 였다(창1:28). 에덴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리고 에덴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었던 ‘아담의 마음’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아담의 마음)’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영이신(생명과 평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의 마음안에 가득차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5. 저항 - 죄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이다. ‘거스르는 것’이다. 저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담을 향해 온전히 흐르고 있던 하늘의 복이 역행되기 시작했다. 흐르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단절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안에 있는 죄의 강, 탐욕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갈라디아서 5:17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역행하고 거스른다.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갈라디아서 5:17, 21]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 역행하는 육의 소욕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조금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역행하는 인간의 죄 : 바벨탑, 압살롬, 탕자, 사울 등 (불순종의 아이콘들)

6. 예수님이 기적 - 아들의 영, 하나님 나라의 유업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통해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된 존재를 말한다. 죄 없었던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었던 존재를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나타난 것이다.

[로마서 8:16-17]

16 바로 그 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17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명확하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의 신분임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자아 성찰적인, 인간의 혼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지정'은 부족하지만 영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마음안에 아들의 영으로 믿고있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7. 하나님 나라의 문화

[마태복음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할 복음은 바로 '천국복음'이다. 천국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는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고있는 자들이다. 순종, 온유함, 겸손함으로 겸비된 성숙한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의 삶이 '문화'가 된다. 몰라서, 힘이 없어서 저항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해서 바보같은 사람이 아니다. 내 힘으로 저항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내 능력보다 '천국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있는 사람이다.

8.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이러한 사람은 다른사람 또는 환경이 아니라, 천국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신안에 천국의 문화를 만든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며, 교회안에 이 천국문화 (천국복음)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다. 천국문화가 일어난 곳은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난다. 사도행전처럼 초자연적인 것이 실체가 된다.

9. 천국문화의 실제 - 코이노니아

사도행전의 교회에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 분명하다. 그들안에 있었던 천국문화 때문이다. '코이노니아' 때문이다. 서로 돌보고, 존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실체가 되었다. 가난, 고통, 아픔이 치유되었고 세상속에서 칭찬을 받으며 날마다 성도가 늘어나는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10. 흐르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가? 천국의 능력이 흐르게 해야한다. 현대인의 마음안에 원망, 분노, 증오, 질투, 불평, 두려움이 가득하다. 이런 묶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흐를 수 없다. 환경을 조작하지 말고, 내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생명의 강을 따라가는 것이다. 생명의 강이 달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실체를 보는 것이 '사역'이다.

인간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죄의 권세, 이것을 무력화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담대히 의지하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 은혜의 강을 선택하여 따라가라. 빛을 따라가라.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흐르는 하늘의 생명의 강을 실제로 느끼게 된다.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핵심사역을 경험한다. (풀림, 자유하게 함)

막힌 곳이 있다면 2018년 다 풀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10년을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용기를 내서 내 마음안에 있는 묶임을 풀어내라. 그것이 팔복의 마음이다.

11.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아들로써 흐르게 하라.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라. 모든 묶임가운데 있었던 탕자의 모든 묶임은,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께 돌아갈 때 풀린다. 회복된다. 아들의 영의 회복은 바로 이런 것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흐르게 하라. 아버지의 복을 흐르게 하라.